



## 예거 르쿨트르, 상하이에 새로운 플래그십 부티크 오픈

###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매뉴팩처를 보여주는 몰입도 높은 공간

예거 르쿨트르는 상하이의 K11 아트 몰(art mall)에 새로운 플래그십 부티크를 오픈합니다. 그랑 메종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이번 부티크는 매뉴팩처의 정신을 지구 반대편의 따뜻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방문객들을 예거 르쿨트르의 흥미로운 세계로 초대합니다.

위치메이킹에 경의를 표하며 레이아웃은 시계 무브먼트의 구성 요소를 연상시키는 원과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공간들은 방문객이 매장의 경로를 직관적으로 따라갈 때 서로 다른 층과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며, 매장 안으로 들어갈수록 메종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가닉 소재와 내추럴 컬러에 중점을 둔 인테리어는 전통과 현대성을 융합함으로써 예거 르쿨트르의 본고장인 발레드주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떠올리게 합니다.

상하이 황피난루(South Huangpi Road)를 마주 보는 곳에 자리한 부티크의 파사드는 혹독한 겨울 날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통적인 발레드주 건물에 사용된, 지붕널(목재 타일) 클래딩에서 영감을 얻은 유리 싱글로 제작되어 그랑 메종을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융합된 유리 싱글은 역광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색상과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 매혹적인 디스플레이는 매뉴팩처의 전면이 유리로 된 북쪽 파사드를 연상시키며, 주변 환경을 반영하여 날씨와 시간에 따라 외관이 달라집니다.

부티크에 들어선 방문객은 현재 예거 르쿨트르 컬렉션의 하이라이트가 담긴 진열 케이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쇼케이스와 나란히 자리한 매혹적인 양방향 칼리버 벽은 고전적인 리테일 공간을 뛰어넘어,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라는 그랑 메종의 권위를 드높이는 상징적인 칼리버로 방문객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실제 모습에 이어, 디지털 쇼케이스를 통해 칼리버를 자세히 살펴본 방문객은 증강 현실로 더 많은 칼리버를 보여주는 위젯을 통해 학습 경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티크의 두 번째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온 방문객은 맞춤 제작이 지닌 힘에 대해 탐구합니다. 리베르소의 역사는 다른 어떤 시계보다 비밀스러운 메시지와 개인적인 상징을 새겨 넣을 수 있는 리베르소를 소유하는 특별한 기쁨을 선사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리베르소 디스플레이와 함께 양방향 스트랩 바는 다양한 맞춤 옵션을 제공하여, 예거 르쿨트르의 모든 스트랩 컬렉션을 모든 모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정이 이어질수록 방문자는 매뉴팩처를 더 깊이 탐구하게 되어, 한 지붕 아래에 모여있는 수많은 공예 기술과 워치메이킹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교육 영상들은 발레 드 주의 아름다운 세계와 에나멜링, 인그레이빙, 앵글라쥬(챔퍼링/엠텝)의 비밀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혁신을 창조하는 디자인과 연구 개발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매장 안쪽의 아틀리에 앙투안에 도착한 방문객들은 매혹적인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직접 워치메이킹을 경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워크숍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의 가장 세련된 노하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와 완전히 동일하게 구현된 공간으로, 스위스 이외의 지역에 아틀리에 앙투안을 영구적으로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디스커버리 워크숍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스위스 파인 워치메이킹의 세계를 탐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워치메이킹 전문가가 주최하는 워크숍은 상호작용을 장려하는 역동적인 형식으로 학술 교육과 실무 경험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시계 무브먼트의 핵심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참가자들은 파인 워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무수히 다양한 기술력과 창조적인 솜씨, 제작과 관련된 여러 단계를 비롯하여 파인 워치메이킹에 사용된 수공예 기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거 르쿨트르와 발레 드 주에서 펼쳐지는 워치메이킹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접해보며 고도로 숙련된 그랑 메종 워치메이커의 작업을 그대로 재현하여 커다란 모형을 통해 실습해볼 수 있습니다.



메종 플래그십 스토어의 아틀리에 앙투안에서 제공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은 리베르소 디스커버리 워크숍이며, 참가자는 리베르소 아카이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다양한 모델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사운드 메이커 디스커버리 워크숍 및 마스터 클래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틀리에 앙투안 공간의 한쪽 벽은 예거 르쿨트르의 세 가지 전문 기술인 셀레스티얼 컴플리케이션, 사운드메이커, 정밀함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와 함께 메티에 라르 전용 디스플레이는 에나멜 및 인그레이빙과 같은 여러 단계를 통해 리베르소가 개인화된 예술 작품으로 변형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부티크 자리한 새로운 글로벌 플래그십 부티크는 단순한 부티크 그 이상으로, 방문객들을 매혹적인 워치메이킹의 세계와 예거 르쿨트르의 놀라운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게 하여, 그랑 메종의 유산과 워치메이킹 전문성, 혁신 정신, 독창성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아틀리에 앙투안 워크숍은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 **예거 르쿨트르: 1833 년부터 이어온 파인 워치메이킹의 명가**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 드 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메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는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하나의 위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워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 년 이래 1,200 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